



WWF

KOREA

A large, gnarled pine tree with a thick, reddish-brown trunk and dense green needles dominates the left side of the image. The background shows a vast, misty mountain range with rolling hills and valleys covered in green vegetation under a cloudy sky.

ANNUAL REPORT 2020

연간보고서 2020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영리 국제자연보전기관으로 본부는 스위스 글랑에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5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자연파괴를 막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이용 방식으로 유도하며,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자 인식 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WWF-Korea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지난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f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WWF-Korea 연간보고서 2020
발행인: 홍윤희
발행처: WWF-Korea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발행일: 2021년 1월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FootageLab / Shutterstock.com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WWF-Korea 연간보고서 2020
© Text and graphics 2020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목차

인사말	2
WWF 소개	4
WWF-KOREA 주요 보전 활동	
– 기후·에너지	8
– 해양	18
기업 파트너십	28
WWF 글로벌 하이라이트	36
변화를 향한 목소리	38
회계 보고	46
WWF 네트워크	48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변화의 길



WWF-Korea
이사장
손성환

2020년 벽두에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대미문의 피해와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WWF가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2020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척추동물 종의 68%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소위 블랙스완(Black Swan) 현상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던 사태이며 자연에 대한 문명사회의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기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증폭시키는 더 큰 위기는 기후변화의 위기입니다. 2019년 9월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은 6개월이나 지속되어 호주 전체 숲의 약 14%가 소실되고 10억마리 이상의 동물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관리하는 자연에 기반한 해결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WWF-Korea는 2021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앞서 멸종위기에 처한 국내 토종 돌고래의 일종인 상괭이 보전을 위해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 안건을 제출했고,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은 국제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이 확산되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린뉴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융분야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WWF-Korea는 국내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와 경영 현황을 분석하여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및 환경위기 대응에 필요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라는 세계 금융계의 추세에 한국 금융기관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설정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달성 등 심도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등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2014년 WWF-Korea가 출범한 이후 6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WWF-Korea의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로 전환을 시작할 때



WWF-Korea
사무총장
홍윤화

2020년 지구 생태용량 초과 날은 8월 22일이었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지구를 사용한다면 1.6개의 지구가 필요하며, 이는 미래세대가 쓸 자원을 미리 당겨쓰는 것입니다. WWF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들의 전방위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했습니다.

이번 연간보고서에 지난 회계연도(2019년 7월~2020년 6월) 1년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기후·에너지팀에서는 파리협정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과 함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노력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 발족을 비롯하여 기업의 환경 경영 선도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제고에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해양보전팀은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국내 최초 대형고래 부검을 주도하여 생태학적 조사는 물론 국내 해양 환경 연구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멸종위기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국내 최초 상괭이 보호구역의 관리 협의체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어린 물고기 보호 캠페인 등 국내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파트너십팀에서는 개별 기업의 변화뿐 아니라 기업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에 힘썼습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섬유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기업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교육과 캠페인 진행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소비자들의 인식제고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WWF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빛을 발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호주는 수 개월 동안의 산불로 전례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WWF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총 3천 6백만 호주달러의 기금을 긴급 조성했고, 서식지 복구와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 회복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최초 진행한 어스아워드 뜻 깊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190여개 국가에서 참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이라는 빛이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전 세계적인 그린뉴딜 기조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목소리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Together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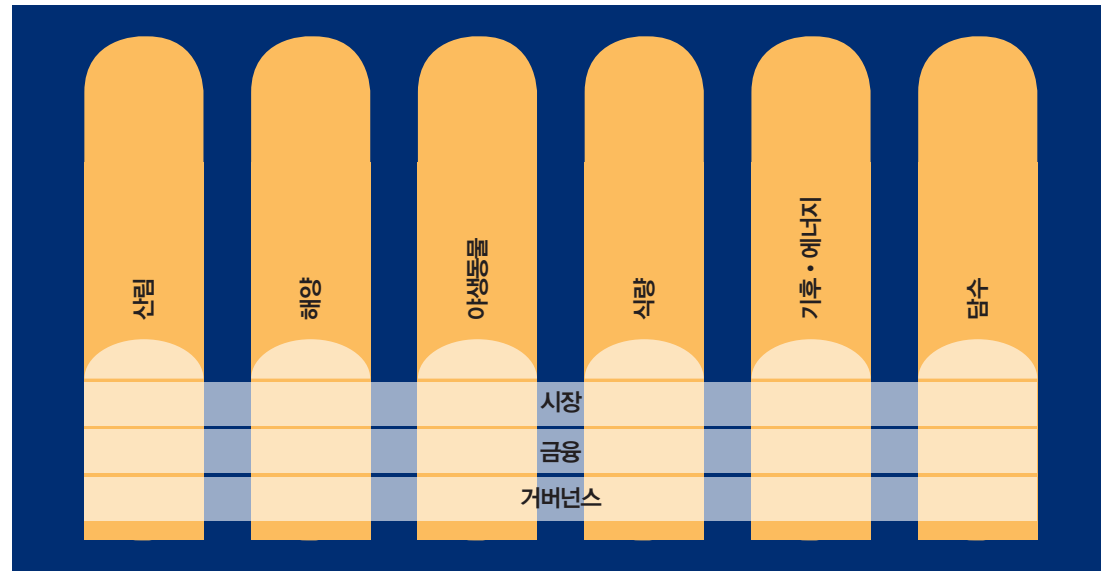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소개

야생동물 보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1961년 영국에서 World Wildlife Fund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1986년 기관 이름을 World Wide Fund for Nature로 변경하고 자연 파괴를 막고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WWF는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약 500만명의 후원자, 3천만 명의 서포터즈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전 세계 자연보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와 전문성을 갖춘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WWF는 기후·에너지와 해양, 야생동물, 산림, 담수, 식량 6개 목표(Goal)로 보전 영역을 구체화하고 시장과 금융, 거버넌스 3개 동력(Driver)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인 보전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WWF는 지구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모든 영역별 목표와 핵심 전략,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본부는 해양과 기후·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전 세계 자연보전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WWF는 2년 마다 발간하는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를 통해 런던동물학회와 함께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발자국 감축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자연보

전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는 WWF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WWF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정부기관과의 협력, 자연보전을 보장하는 금융의 확산, 기업과의 협력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WWF 글로벌 목표

기후·에너지

기후변화로부터 회복가능한 저탄소 사회 구축



해양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도모와 이를 통한 인류의 생활 수준 향상



야생동물

생물 개체 수 회복 및 보전



산림

산림 보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웰빙 증진 및 유지



담수

사람과 자연을 위한 물 보전



식량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마련



동력

시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전환



금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 확대



거버넌스

6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정책 강화



WWF의 미션 –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WWF

기후위기의 위험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가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1세기 중반까지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사회를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명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목표 설정은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게 이끈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자연을 위한 분명하고 뚜렷한 전략은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그린뉴딜 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 WWF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과감하게 과학 기반의 전략과 목표를 수용하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WWF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2030년까지 자연을 회복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1. ZERO loss of natural habitats 자연 서식지의 보전

보전 노력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

2. ZERO extinction of species 생물종 멸종 방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야생 생물종 착취와 불법 거래 종식

3. HALVE footprint of production & consumption 생산과 소비의 생태발자국 감소

생산과 소비의 생태발자국 감소

에너지, 농업, 어업, 인프라, 채광 및 임업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금융 흐름의 변화 도모



WWF-KOREA 주요 보전 활동: 기후·에너지



탄소중립을 향한 시장 및 금융의 기후행동 강화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1.5도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제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후, 자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나설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1. 활동 배경과 목표

2020년은 기후변화에 있어 중요한 해이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파리협정이 시행되는 신(新)기후체제를 맞이하기 바로 전이기 때문이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더이상 일부 선진국만이 아닌 전세계 모든 국가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가량 감축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2030년 국가결정기여(NDC) 목표를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금융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넷제로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후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부문의 행동이 모여 긍정적인 영향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의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그 시작은 '기후, 자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1.5도 목표 달성'을 우리 모두가 가져가야 할 목표로 수립하고, 각 부문에서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WWF는 한국의 기후 목표를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기후와 에너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적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과학기반목표(SBT) 이니셔티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금융 흐름의 방향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맞춰 전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을 지지하는 비즈니스로의 변화, 즉 시장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금융 기관과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행동을 향상시켜 한국 사회의 기후행동을 극대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기후·에너지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이니셔티브 제공 및 참여 유도
-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제공
-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에너지 관련 전략 개발 지원

2. 추진 활동 및 성과

1) 가이드 소개 및 모범 사례 공유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SBTi는 파리협정 목표와 최신 기후 과학에 맞추어 기업이 과학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세우고 기후 변화 대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WWF와 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어 목표를 세우는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후행동*을 강화한다.

SBTi 참여 방법은 크게 △SBT 수립을 선언하는 1단계와 △수립한 SBT를 이니셔티브의 검증을 받는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SBT 선언을 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500여 개의 기업이 목표를 수립했다. 한국에서는 현재 4개 기업(DGB금융그룹, SK텔레콤, SK증권, 신한금융그룹)이 참여 선언을 하여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WWF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SBTi 목표 수립 방법과 모범 사례를 기업에 소개했다.



기후행동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후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 인위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시점에서 현저히 줄어든다 하더라도 향후 최소 50~200년간은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 빙하 감소와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와 같은 1차적인 피해는 물론 인류의 건강 위협, 물부족과 농작물 수확의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행동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속도를 낮추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

CoREi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목표의 수행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WWF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UNGC Korea),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KSNRE)가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이다. 참여 기업은 CoREi가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기회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미나, 워크숍, 이해관계자 미팅 등 기업의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과, 실무진 대상의 스터디그룹과 고위직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파리협정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 부문의 역할이 점차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탄소중립, 탈탄소화를 향한 목표 수립에 대한 금융 부문의 자체적인 이행뿐 아니라, 시장을 대상으로 목표와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자연합(Net Zero Asset Owner Alliance)', 투자기관

의 포트폴리오를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노력들이 이에 해당한다. WWF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영국은행 관점에서의 G20 차원의 기후 금융 움직임,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EU Taxonomy)'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알리안츠, ING 등 투자기관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했다.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
1.5°C

2) 공동 행동을 위한 플랫폼 제공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limate Action Round-Table: CART)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은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기후와 에너지 관련 이슈와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한다.

2019년 11월 진행된 세션은 파리협정 이후 맞이하게 될 신기후체제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면하는 기후위기 대응 도전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금융이 G20 차원에서 경제 이슈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업의 시사점을 공유했

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의 확대 관련 글로벌 동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도입 정책에 관한 발표를 통해 기업의 관심과 기후행동을 독려하고자 했다.

2020년 6월에는 EU Taxonomy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유하고, SBTi 참여에 대한 기업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내 기업의 선도적인 리더십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을 함께 모색한다.



과학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수립 기업
OVER 500

기후행동 컨퍼런스(Climate Action Conference, CAC)

2020년 6월,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넷제로 목표와 기후행동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기후행동 컨퍼런스가 열렸다. 2020년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까지 온도 상승을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다. 한국도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에 개최된 기후행동 컨퍼런스는 거버넌스, 시장, 금융 측면의 글로벌 리더십을 살펴보고 한국의 기후행동 강화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넷제로 목표와 기후행동 강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거버넌스, 시장, 금융 부문의 글로벌 리딩 사례가 소개되었다. 넷제로 법제화를 포함한 영국 기후 리더십

을 소개하고, 'Net-Zero Asset Owner Alliance'로 보는 금융 부문의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주한덴마크대사관, ING그룹, H&M그룹 사례를 통해 부문별 탈탄소화, 기업의 정책제언 활동에 관한 발표를 통해 한국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3)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기후행동 서포터즈(Climat Action Suppor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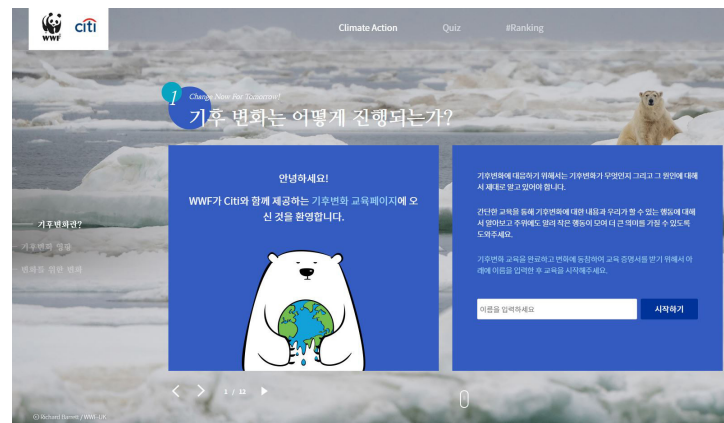
'기후행동 서포터즈'는 청년층의 기후 행동 인식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30 여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기후·에너지와 자연보전 전반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기후·에너지와 담수, 산림, 식량, 야생동물, 해양 등 WWF가 추구하는 글로벌 자연보전 목표를 팀별 주제로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올해는 특히 제한된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기후 해커톤과 디자인 씹킹(design thinking)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WWF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지원

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설 환경분야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연보전 전반에 관한 시

각을 넓히는 데 기여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 고자 한다.



기후변화 교육 웹사이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WWF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웹사이트(www.climateaction.or.kr)를 개설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퀴즈를 풀면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했다.



© Alexandros Michalidis / Shutterstock.com

WWF-KOREA 주요 보전 활동: 해양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일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바다를 지키는 일은 생태계를, 생물다양성을,
결국 우리가 속한 자연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일이다.

1. 활동 배경과 목표

바다의 건강이 위태롭다. 남획, 혼획, 오염 등 인간활동의 빈도와 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다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고스란히 받고 있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93%를 흡수하는 바다는 점차 뜨거워지고 산성화되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는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생물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위기에 처하며 해안가의 사람들도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물순환이 빨라지면서 태풍, 해일, 장마의 강도가 세지고 횡수도 잦아지고 있다. 지구의 70%에 해당하는 해양이 무너지면 지구시스템도 온전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WWF는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인증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소비와 유통을 확산하기 위해 유통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의 힘'으로 해양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인식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보전이 필요한 해양생태계와 지역을 파악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2. 추진 활동 및 성과

1) 지속가능한 원양 어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립된 가운데, 우리의 바다 역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업의 관리 감독과 원양수산자원의 과학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옵서버'의 이동과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코로나의 여파가 먼 바다까지 닿고 있다. 외부 활동의 제한으로 유럽,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참치캔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남획과 수산자원의 고갈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WWF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확대하기 위해 쉽없이 달려가고 있다.

WWF-동원산업, 동북아시아 최초 FIP 어업개선프로젝트 시작

2020년은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한 단계 도약한 기념비적인 한 해로 기록되었다. WWF는 전 세계 최대 다량어 조업선사인 동원산업과 태평양 및 대서양의 다량어 자원을 관리하고 어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FIP 어업개선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WWF-동원산업의 태평양 FIP은 파푸아뉴기니등 9개 도서국가 EEZ와 태평양 공해에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망어선 14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서양 FIP는 세네갈을 포함한 서아프리카 7개 국가 EEZ와 대서양 공해에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를 조업하는 세네갈 국적 선망어선 6척이 참여하고 있다. WWF와 동원산업이 참여하는 FIP은 모든 다량어 어종 자원

의 최대지속가능어획량(MSY) 유지 및 상어, 고래 등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을 목표로 2020년 3~4월에 시작되었으며 2025년 MSC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P(Fishery Improvement Project, 어업개선프로젝트)**
특정 어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자원관리, 환경적 영향 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어업관리 의사결정

정부-업계-시민사회 모여 라운드테이블 개최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정부-업계-NGO 라운드테이블(Korea Roundtable for Sustainable Tuna)은 다량어 선망어업의 지속가능성과 MSC인증이라는 주제를 확장하여, 원양수산물의 이력추적성과 어업정보투명성에 대한 협의를 국내 최초로 시작하였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개최한 '2019 지

속가능 국제어업관리를 위한 컨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립수산물관리원 등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카이스트, 부경대, 국민대, 숙명여대 등 학계를 비롯해 TESCO, New England Seafood 등 유럽 수산물 리테일 및 유통업체, 삼성 SDS, Open SC 등 IT기반 유통망 관리 솔루션업체, Pew, EJF, ISSF, Global Fishing Watch과 같은 국제 NGO 등 국내외 이력추적성 전문가들이 모였다. 또한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한성기업, 신현수산, 유왕 등 국내 주요 수산기업과 콘래드호텔, 풀무원 등과 같은 수산물 리테일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여, 수산물 이력추적성과 기업 리스크 관리, 국제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특히 CCTV와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형 전자조업모니터링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불법어업 근절

수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

바다는 우리에게 풍부한 수산물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 세계 수산물의 12~30%가 불법적으로 어획,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같은 환경적 문제와 불법 노동력 착취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소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수산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WWF와 IFT(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는 투명한 수산물 유통 정보 공개를 위해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다이얼로그(GDST, 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를 도입했다. GDST는 수산물의 이력추적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국제 수산물 정보 공유 B2B 플랫폼이다. 국내 대표적인 다량어 선사인 동원산업을 비롯해 전 세계 약 70개의 대표적 글로벌 수산 기업이 GDST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GDST 기준 1.0을 도입해 정보공유 기준으로 공식 채택했다.

GDST는 어선정보, 어획지역, 사용어구 등의 수산물 어획에 대한 모든 정보와 수산물의 환적, 양육,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자화한다. 기존에는 수기로 작성했던 정보들을 전자화 시켜 효율성을 크게 높였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의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획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의 조작이나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도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수산물에 대한 이력 추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성도 크게 높였다.



전세계 수산물의
12~30%
불법적 어획,
생산, 유통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성 온라인 세미나 개최

WWF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Auto-ID Labs와 함께 2020년 5월 안전한 수산물 확보와 해양생물 보전을 위한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동향과 기술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수산물 유통 관계자, 원양어업 관계자, 학계 등 수산업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GDST 기준 1.0과 불가역성을 활용한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WWF는 앞으로도 GDST와 같은 이력추적성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더 많은 수산 기업이 투명한 어업 및 어획물 유통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치어럽 캠페인

WWF는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보전 프로젝트 '치어럽 캠페인'을 진행했다. 치어럽(稚漁-Love) 캠페인은 수산자원 고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어린 물고기(치어)의 남획을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2019년 10월 WWF,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연구원, 제일기획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WWF는 어린 물고기를 '잡지도, 사지도, 먹지도 말자'는 취지로 제작된 '치어럽 밴드'를 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수산자원 고갈로 위험에 처한 바다를 되돌리는 일이 어민과 정부, 기업 등 특정 직업군의 몫이 아니라 국민 한 명 한명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치어럽 밴드는 주요 대중성 어종 7종(참돔, 고등어, 볼락, 우럭, 쥐노래미, 감성돔, 광어)의 포획금지체장을 표시하여 누구나 쉽게 치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밴드이다. 손목에 손쉽게 감기는 치어럽 밴드는 평소에는 손목에 말아서 팔찌로 착용하는 패션아이템이지만, 낚시를 하는 동안이나 장을 보는 동안에는 물고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줄자 역할을 한다.

캠페인 기간 중 전량이 소진될 정도로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를 받았다. 또한 타일러, 박태환, 신수지 등과 같은 유명인이 개인 SNS에 치어럽 밴드 착용샷을 올리며 500개 이상의 폭발적인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기록하였고, 가수 윤도현과 이연복 세프는 방송에 출연하여 밴드를 직접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다.



뉴욕광고제 동상 수상

국민들에게 치어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한 치어럽 캠페인은 2020년 5월 '2020 뉴욕 페스티벌 광고제'의 '사회적 기여/환경보전 및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뉴욕 페스티벌 광고제는 1957년부터 시작된 광고제로, 칸 국제광고제, 클리오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계적인 광고제이다.

국무총리표창 수상

WWF 해양보전팀은 제 8회 바다식목일* 정부포상에서 수산자원보전을 위한 다양하고 꾸준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해양보전팀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관리를 위한 협의회 활동, 어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노력, 성공적인 치어럽 캠페인을 이행하여 국내 수산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바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WWF는 앞으로도 정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수산자원 보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더 많은 국민이 연근해 수산자원 보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2012년 시작된 바다식목일(매년 5월 10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다.

4)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참고래 부검 주도

2020년 1월 3일 WWF는 제주대-서울대-인하대-한양대와 함께 해양생물보호중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인 참고래를 부검하였다. 이 날 부검이 진행된 참고래는 지난해 12월 22일 제주 한림읍 비양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바다에서 사체로 표류되어 발견된 1살이 채 안된 어린 참고래였다. 이번 부검은 10m 이상 크기의 대형고래를 국내 최초 민간협력을 통해 공식 진행된 사례로, 해양환경 및 생태학적 연구에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래의 뱃속에서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조각, 1m 가량의 밧줄 등이 발견되었으나 위를 틀어막고 있지는 않았으며 정확한 죽음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양 포유류는 바다의 건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내에서 사체로 발견된 참고래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WWF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우리 바다의 건강을 보여주는 다양한 해양포유류 부검을 시행해 해양포유류 보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바다의 보전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유용예 / WWF-Korea



© 미디어 물 이정준 감독

국내 최초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

2019년 12월 경상남도 고성군은 하이먼 앞바다 210헥타르를 상괭이 보호를 위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해양생물보호구역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가 앞장서 고래류를 위해 지정한 보호구역이자 가로림만에 이은 국내 두번째 해양생물 보호구역이다. 전 세계적으로 바퀴다, 양쯔고래와 같은 소형고래류의 멸종위기가 심화되고 있기에 고성군의 첫 소형고래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향후 발전 방안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형고래류에 속하는 상괭이는 황해 전역에서 발견되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서식하여 토종 돌고래로 불린다.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서해에서만 개체수가 64% 감소하였으며 국내에서 서식하는 고래류 중 가장 많이 혼획*되는 종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상괭이를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고, 2017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상괭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2020년 5월 고성군은 효과적인 보호구역 관리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물보전을 위한 코리아 네트워크 허브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WWF는 해당 심포지엄에서 인간활동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 혼획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놓인 소형고래류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의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고성군의 효과적인 해양생물보호구역 발전 방안으로 '상괭이 프렌들리(Friendly) 수산물'을 제안하였다. 상괭이 Friendly 수산물이란 음향탐지기를 활용해 개체수 추세를 조사해 이뤄진 해양보호구역 근처에서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수확된 수산물을 차별화시켜 홍보하는 브랜딩 방안이다. 고성군 지역민에게 상괭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보호구역에 공동주인의식을 제고할 것 또한 제안하였다.

WWF는 고성군 해양생물보호구역 정책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해나갈 것이다.

*혼획

어획 대상종에 섞여 상괭이와 같은 다른 종이 잡히는 현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WCC 상괭이 보전 안건 상정

2019년 11월6일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개최하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에 WWF가 제출한 '멸종위기에 처한 황해의 상괭이 보전' 안건이 공식 상정되었다. WCC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환경회의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환경 올림픽으로 불린다. 이로써 한국의 토종고래 상괭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해당 안건은 황해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상괭이 보전을 위해 황해 주변 국가(중국, 북한, 한국 등)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기초조사 및 해결방안 토대 마련을 제안한다.

- 개체수 추세, 분포, 서식지 조사
- 혼획 실태 모니터링
- 혼획 외 환경 위해요인 분석
- 혼획저감 계획 수립

해당 안건을 통해 상괭이 보전을 위한 서식 국가간 정보 및 경험 공유가 활성화 될 것이다. WWF는 이번 안건 상정이 상괭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WWF-KOREA 기업 파트너십



자연파괴를 막기 위한 생산과 소비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자연의 가치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시스템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기업만이
미래 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1. 활동 배경과 목표

WWF는 지구의 자원과 자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기업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과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WWF는 이들과 함께 산림 파괴와 수산물 남획, 물 부족, 기후변화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업이 자연에 미치는 환경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방향에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 및 공익 연계 마케팅을 함께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재정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아 자연보전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WWF-Korea가 집중하고 있는 기후에너지와 해양보전 이외에도 숲, 담수 그리고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기업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2. 추진 활동 및 성과

1) 기업 파트너십 활동

코카-콜라

한국 코카-콜라는 2017년부터 WWF-Kore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함께 물환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물환원 프로젝트는 코카-콜라가 음료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만큼 물 부족 지역에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또,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해 수퍼마켓이 기획한 쓰레기마트에도 참여하여 음료 캔과 페트를 기계를 통해 포인트로 전환하여 마트의 친환경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통한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Citi

한국씨티은행은 2018년부터 '내일을 위한 변화 (Change Now for Tomorrow)' 기후 행동 파트너십을 맺었다.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고자 기후·에너지 부문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였다. 대학생 서포터즈 및 임직원 교육, 봉사활동, 기후변화 교육 웹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인식제고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그린사이클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WWF-Korea와 함께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사 브랜드 매장에서 화



장품 공병을 수거 및 관리하고 있으며 수거품의 재생원료를 활용하여 재활용 공병 등 다양한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고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SBC

WWF와 HSBC는 2012년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HSBC 물 프로젝트(Water Programme)'을 함께 해오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8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습지복원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HSBC 임직원 및 가족은 수자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한강과 태안 등 지역에서 자연정화 활동 및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자생종 식재 등의 활동을 했다. 또, 활동에 우수하게 참여한 임직원 5명을 뽑아 베트남 호치민 짬짬(Tram Chim) 국립공원으로 에코트립을 떠나 수자원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다

대상트

대상트코리아와 WWF는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환을 위해 '세이브더펄

컨'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이슈에 대한 대중 인식제고 활동을 함께 했다. 2019년 6월 말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간 서울 연남동 쓰레기마트에 '세이브더펄' 에코백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7월에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해양생물, 자원 순환 등을 주제로 WWF와 판다토크를 진행하였다.

K2

K2는 WWF와 클린백, 어스키퍼, 도심 숲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보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으며, 2019년에는 울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울산 미포 산업단지 일대에 미세먼지 저감 도심 숲을 조성하였다. 울산 미세먼지 저감 도심 숲 프로젝트를 통해 총 11가지의 종류의 나무가 식재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 현상 완화에 기여될 예정이다.

JDC

JDC는 2019년 9월 WWF-Korea와 파트너십을 맺고 플라스틱 재활용과 자원순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



술단지의 문화공간 '낭'에 수퍼빈과 함께 쓰레기 미술관을 열고 자원 순환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쓰레기가 예술이 되는 쓰레기 미술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환경교육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에 대해 소개를 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WWF-Korea와 함께 자원순환 인식제고를 위한 친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퍼빈의 인공지능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을 활용하여 순환경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7개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플라스틱 저감 활동을 지원했다.

SKT

WWF-Korea와 SKT는 2019년 8월 말부터 한 달간 '동물 없는 동물원'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WWF의 미션을 바탕으로, SKT가 보유한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등 ICT 기술을 활용해 동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였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캠페인 참여하여 야생동물과 그들의 서식지 보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LGU+

WWF-Korea와 LG유플러스는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의 VR(가상현실)앱인 U+VR에서 '멸종동물 공원'이라는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는 친환경 출판사 '나무야 미안해'와 협업하여 VR 콘텐츠를 입체 그림으로 재현한 팝업북을 출간했고 수익금을 기부하였다.

갤러리아

WWF는 갤러리아의 Right! OCEAN 캠페인 활동의 파트너로 참가하였다. Right! OCEAN 캠페인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키우고 대중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진행되었다. 충남 태안군 학암포 일대에서 갤러리아 임직원, 캠페인 관계자들과 함께 해안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업사이클 예술품들이 갤러리아 백화점 광고점에 전시되었고 캠페인 기간 동안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했다.

P&G

P&G는 WWF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로 저감하고 산림 복원, 보존 및 생태계기반 접근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P&G는 WWF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Savers)에 가입하는 등 WWF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연보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P&G Korea는 지난 4월 WWF-Korea와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연보전 활동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자연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동화책 발간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 교육 캠페인을 계획 중에 있다.

벨그룹코리아

벨그룹과 WWF는 글로벌 차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낙농업에서 오는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WWF-Korea와 벨그룹의 벨치즈코리아가 파트너십을 맺고 벨치즈코리아의 키리 브랜드와 함께 세계 환경의날을 맞아 멸종위기 코끼리 보호를 위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WWF-Korea와 벨치즈코리아는 새로운 벨그룹의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후원을 통한 참여 기업들

기업들은 WWF의 자연보전 프로젝트 또는 전반적인 보전활동을 돕기 위해 후원을 통한 자연보전 기여에 동참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사업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젝트 또는 기업과 임직원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이슈에 기부가 가능하며, WWF는 이 같은 기부금을 해당 프로젝트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2020 회계연도에는 DAIZ, 코레일네트웍스, 컴투스, 오비맥주, 글로벌셰이퍼커뮤니티(채식의날), 한화생명, 현대해상, 현대그린푸드, 투에버, (주)위드텍, (주)공감네트웍스, (주)솔트엔터테인먼트, 원블링에서 자선기부에 참여하여 자연보전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2) 기업 공동의 노력

2-1) 섬유패션산업

단일 산업군 탄소배출량 2위, 담수 사용량 2위 산업인 섬유패션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 비즈니스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WWF는 한국 기업들이 3차 인증 및 검증제도 활용, 담수, 에너지, 폐기물 등의 환경 영향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섬유패션업계의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패션 라운드테이블

WWF는 기업, 기관 등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지난해 4월 제 1회 '지속가능한 패션 라운드테이블'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였다. 섬유패션업계의 지속가능 프로그램의 글로벌 현황 공유와 코로나19 이후의 섬유패션업계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방향성 제시 등을 주제로 연사들의 발표와 온라인으로 참여한 관계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패널토론 등 총 다섯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티셔츠 한 장 생산에 드는 담수의 양
2,700L





© ㈜어썬이엔티

프로젝트 리텍스타일(Re:Textile)

패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류폐기물의 큰 부분인 완제품 폐기 원단을 지속가능한 패션에 뜻이 있는 브랜드들의 색깔로 재활용한 컬렉션 제작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패션의 진정한 의미와 현 업계의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히그인덱스(Higg Index), GRS 등 원단의 환경적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와 인증을 활용하여 패션아이템의 생태발자국과 재활용, 새활용, 재사용의 가치를 알리는 패션 시장 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공식 론칭했다.



목화는 지구상 가장 넓게 재배되는 작물이며, 단 6개 국가에서 3천5백만 헥타르의 땅을 경작지로 이용한다

WWF와 섬유패션업계의 글로벌 협력

WWF는 글로벌 패션브랜드뿐 아니라 SAC, GOTS와 같은 업계 주요 연합들과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변화 프로그램과 플랫폼 등을 구축해오고 있다. 올해는 주요 섬유 생산지 밀집지역이자 전 세계 5개 담수위험(water risk) 지역에 담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처 모니터링과 지역정부와의 협업으로 담수 및 지역 생태계 회복에 힘쓰고 있다. 또한 두 번째 'Sustainable Cotton Ranking'을 발표해 전 세계 주요 면 사용 기업 77개의 면 소싱 현황과 지난 2017년도 결과와 비교한 차트를 공표해 앞으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면 소싱에 노력하도록 촉구하고있다.

2-2) 플라스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는 보고되어 왔으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WWF에서는 'No Plastic in Nature by 2030'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의 환경 유입을 막고 생태계 오염을 멈추고자 한다. WWF-Korea에서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산업군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 공동의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고서 발간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보고서가 2020년 12월 중 발간됐다. 플라스틱의 전 주기(설계, 디자인,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등) 단계별로 모범적인 플라스틱 감축 또는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참고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ReSource 소개

2019년 WWF미국에서 구축한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 지원 플랫폼으로 가입 기업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정량화하여 값을 공개하고, WWF의 플라스틱 전문가 자문단이 플라스틱의 전 주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5개의 글로벌 기업(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P&G, Keurig DrPepper)이 첫째 년도 시범 연구에 참여했으며 2020년 6월에는 Amcor, Colgate-Palmolive, Kimberly-Clark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관심 있는 국내 기업은 WWF-Korea를 통해 ReSource에 가입할 수 있다.

PACT 소개

2019년 WWF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Plastic ACTion(PACT)는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기업 공동의 선언으로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도 뒤이어 결성되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시장 분야별 또는 기업별 상황에 맞게 플라스틱 관련 선언 내용을 강조하여 다양한 각도와 레벨로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PACT는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과 식음료 매장에 집중하고, 홍콩 PACT는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 말레이시아 PACT는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과 호텔체인에 집중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WWF-Korea에서도 라운드테이블 및 기업 회의를 통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PACT를 구축할 예정이다.

WWF 글로벌 하이라이트

“2020년, WWF는 많은 영역에서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다. 올해 우리의 활동은 자연을 회복의 길로 이끄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 WWF 마르코 람베르티니 사무총장



© Shutterstock / Ondrej Prosimsky / WWF-International

야생동물

야생보전지역 확대: 러시아내 4개 신규 지역 220만 헥타르 확대, 몽골 10개 지역내 약 130만 헥타르 확대

보전활동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여러 보전 단체 및 기술 사업체들과 함께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첫 기술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양

수산물 이력추적: WWF가 공동 발족한 the 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는 이력추적성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해 여러 회사가 사용하는 다양한 데이터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350억 USD에 달하는 수산물 제품을 생산하는 60개 이상의 선도적 수산물 기업들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산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콩고민주공화국, 기아나, 인도네시아, 페루 등의 주요 열대우림 지역에서 사회적 전통 관습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자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담수

담수복원 계획: WWF의 과학자들과

여러 단체들이 강과 호수, 습지 등 담수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급감하는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긴급복원계획'을 시작했다.

담수보전 활동의 확대: 유럽연합은 37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지지한 WWF 담수보전 캠페인에 따른 프레임워크 지침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기후·에너지

기업 기후행동 강화: WWF는 기업과 협력하여 이들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약 1000여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과학기반목표(SBT)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하여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식량

식습관의 변화: 기후와 자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2020년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지역 12개국 이상에서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식습관 변화를 위한 'Eat4Change' 4개년 프로젝트 개발에 100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다.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WWF는 자연파괴를 막지 못 할 경우, 전 세계가 치러야 할 경제적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자연파괴를 경제적 관점에서 세계 최초로 분석한 '지구의

미래(Global Future)' 보고서는 담수, 목재, 수분, 홍수 예방 및 탄소 포집과 같은 주요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지 못하면 2050년까지 세계 GDP가 거의 10조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각 국가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자연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으며, 현재 세계은행과 영국 재무부에서 이 연구를 활용하고 있다.

거버넌스

포괄적 보전활동: 지역사회 및 지역 공동체(PLC)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보전 지역에 대한 인식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있다.

시장

기업 협력: 약 4 조 USD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560여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WWF가 지원하는 Business for Nature 연합에 참여하여 정부가 향후 10년 간 자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UN조약 마련을 촉구하고자 전 세계 온라인 서명을 진행했고, 약 175만명 이상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WWF와 함께 하는 시민의 목소리

어스아워(Earth Hour)

하나뿐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약속

전등을 끄고 생명의 빛을 켜는 한 시간. 2020년 3월 28일 저녁 8시 30분 전 세계 190여 개국 주요 랜드마크의 불이 꺼졌다. 2007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된 어스아워는 1년에 1번 1시간 만이라도 자연의 소중함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세계적인 캠페인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처음으로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어스아워 사전 프로그램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귀신고래의 이야기를 담은 이정준 자연다큐멘터리 감독과의 대화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양식 인증을 받은 전복을 활용한 제철 요리 시연이 이어졌다. 수 천 명의 시민들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여 국내 주요 랜드마크인 국회의사당, 서울N타워, 롯데월드타워 등이 불이 꺼지는 순간을 함께 했다. 시민들과 더불어 WWF 홍보대사 타일러, 배우 김선호, 최광호 셰프, 박준우 셰프 등이 어스아워 행사를 응원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어스아워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관련하여 30억 디지털 노출, 47억 번의 SNS 참여가 집계됐다. 37개 국가에서는 소셜 플랫폼 트위터와 구글 검색에서 실시간 트렌드로 떠오르기도 했다. 어스아워는 작은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WWF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운동으로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WWF와 함께 하는 전 세계 후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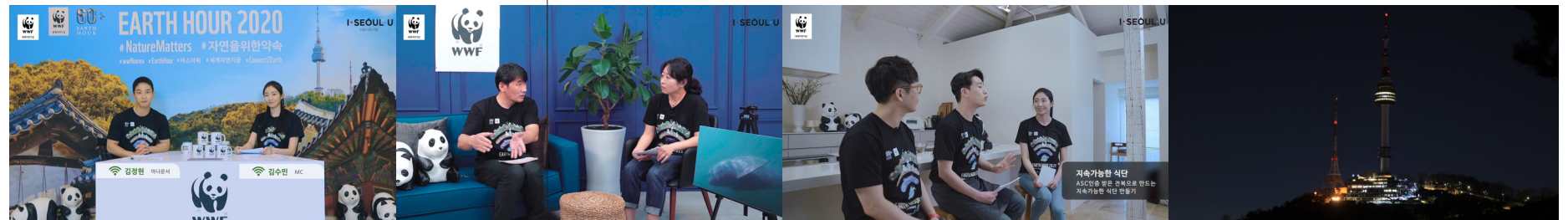
+500만명

WWF와 함께 하는 SNS 서포터즈



+3000만명

이 일러스트는 studio nowww 김하윤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호주산불 긴급구호

2019년 연말 시작되어 수 개월 동안 호주 전역을 휩쓴 산불 화재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WWF네트워크가 힘을 모았다. 전 세계 WWF는 네트워크를 통해 약 3천 116만 호주달러를 모금하였고, WWF 한국본부는 이 중 약 11만 호주달러(한화 9천만원 상당)를 지난 3월 WWF 호주본부에 전달했다. 자세한 모금 내역과 송금액은 아래와 같다. WWF 호주는 신속히 야생동물 긴급구조 및 치료, 화재현장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코알라 개체수 두 배 늘리기, 2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야생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모금액 총 합계
- 후원 수: 3,909건
- 후원 금액: 90,169,277원



© Adam Dederer



이 일러스트는 studio nowwww 김하윤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판다 토크(Panda Talks)



WWF-Korea는 2019년 7월과 11월 두 차례 판다토크(Panda Talks)를 진행했다. 강연 플랫폼 TED의 형식을 차용한 판다토크는 자연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7월에는 플라스틱이 자연에 미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WWF-Korea 이영란 해양보전 팀장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스마트에코 김익 대표는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에 대해, 슈퍼민 김정빈 대표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활용 방법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11월에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지향하는 강병욱 셰프

의 지속가능한 식단 이야기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최성임 설치미술작가의 작품 전시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됐다. WWF-Korea 박민혜 파트너십 팀장의 보전활동 소개도 진행됐다. 이번 판다토크에서는 가로수 월동파복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패치를 부착하는 특별 이벤트도 열렸다. 1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패치를 직접 가로수에 부착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시민과 함께 하는 WWF의 목소리

WWF는 100여 개 국가에 본부를 두고 약 5백만 명의 후원자 및 3천만 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인간과 자연의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WWF는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더 큰 변화를 만들고자 이를 나누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 연간보고서에는 WWF-Korea의 홍보대사 배우 박서준, 방송인 타이러 라쉬와 WWF의 든든한 후원자, 그리고 판다로 불리는 WWF 직원의 목소리를 한데 담았다.

WWF 홍보대사

배우 박서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화재, 더위, 가뭄, 홍수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WWF의 활동에 응원을 보내며,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변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쿨어쌌이엔티

방송인 타이러 라쉬

“저는 단순하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인간이라는 저의 존재가 문제가 아닌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후원자 분들이 지구의 귀한 생명과 생태계를 지켜주는 데 힘을 모아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어렵고 복잡해도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tyler rasch

WWF 후원자

황상영 후원자

(제주항공 파일럿으로 사내 탄소저감TF 활동을 통해 수상한 상금을 WWF에 기부)

“사내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비행 시 탄소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환경을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WWF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환경오염의 주범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더 알려진다면 항공산업에서도 환경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주영 후원자

(2014년 WWF-Korea 설립 이래로 6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장기 후원자)

“처음에는 학교 지하철역 근처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하던 모습을 보고 귀여운 판다 로고가 그려진 기념품이 탐 나서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다소 불순한 의도로 시작하긴 했지만, 활동을 지켜보다 보니 후원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는 결국 모두의 문제이고, 한 사람, 단체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WWF는 특히 관련 분야의 기업, 정부 등 다른 주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활동을 많이, 그리고 잘 하시는 것 같아 응원하고 있습니다.”



WWF 직원

박두현 (해양보전팀)

“환경파괴와 자연자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현대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환경,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인류의 미래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수산물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남획과 불법어업이 계속된다면, 명태처럼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주인은 우리 모두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잡힌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WWF의 목소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수현 (기후·에너지팀)

“WWF의 가장 주된 차별점은 국내 환경 NGO 중 거의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하여 금융부문과 직접 연계하여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꼭 보호되어야 하는 자연과 인간 자원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금융 흐름의 방향이 자연 서식지를 보전하고 저탄소 전환을 지지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금융이 자연 서식지와 생물종 보전과 회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저는 집에서 판다를 키우게 꿈이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수 천 명의 WWF 판다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보람과 행복을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WWF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회계 보고

WWF-Korea 의 2020 회계연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인 2020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후원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덕분에 2019에 이어 지속 가능한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후원자님의 도움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명경영을 위한 WWF-Korea의 지속적인 노력

WWF-Korea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금, 사업 운영, 후원금 관리의 과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 내용과 예산을 계획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주무관청에 수립 예산을 보고합니다. 예산 변경이나 예산에 따른 후원금 사용 내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 후원금을 사용하며, 후원 목적에 적합한 후원금 사용을 위해 회계 시스템 내에서 용도에 맞는 계정과 증빙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이사회에서 사업 운영 및 지출, 결산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며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 외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사업 실적, 수입, 지출 내역 및 차기 연도의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결산 내역 등을 이사회와 WWF 국제본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국세청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감사 시스템

외부감사

서우회계법인
연 1회 감사

정부감사

환경부, 국세청, 세무서 점검 및 감사
환경부: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의 보고서 제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
세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공익법인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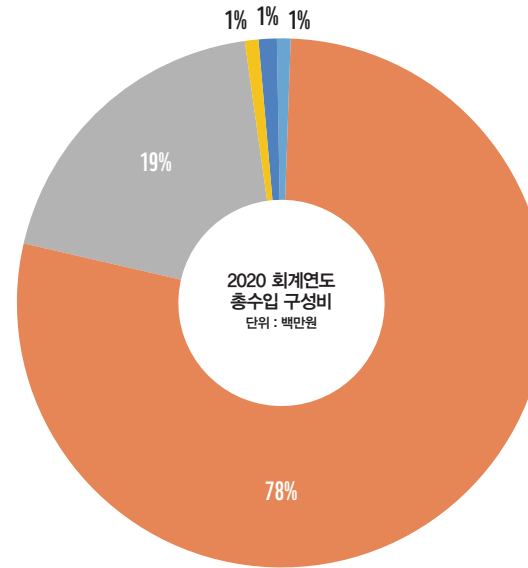
국세청 웹사이트 공시
한국세계자연기금 웹사이트 공시
FY20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는 wwfkorea.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내부 감사

연 2회 이상 이사회 감사

WWF-International 감사

WWF-International
회계연도 마감 후 연 1회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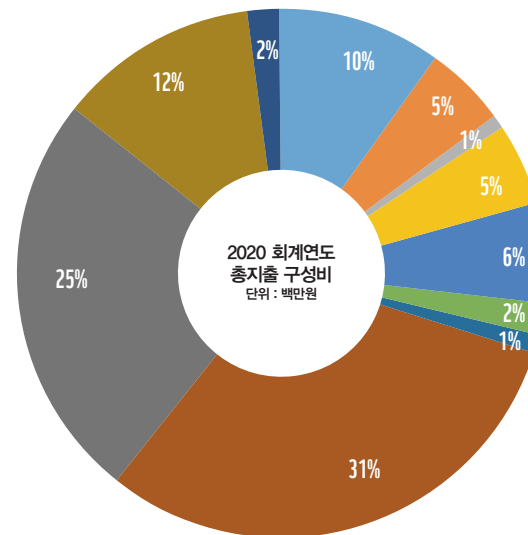


수입

2020 회계연도의 총 수익은 7,445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 수입의 구성은 개인 후원자 후원금이 가장 큰 비중인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후원금의 비율은 19%, WWF 네트워크 지원금, 공공기관 지원금, 기타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3%입니다.

범례

- WWF-Network
- 개인 후원자 후원금
- 기업 후원금
- 공공기관 후원금
- 기타 수익



지출

2020 회계연도의 총 지출은 5,629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수치입니다. 총 지출 금액의 63%가 자연보전 활동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후원자 모집 및 관리에 25%, 그리고 12%는 운영 및 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총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보전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보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WWF는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정부기관 및 지자체, 연구해 어민, 수산물 유통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종 보전을 위한 활동과 시민 인식제고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한 선도적인 활동과 다양한 기업 파트너들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이행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범례 (단위: 원)

- 플라스틱 프로그램 541,397,119
- 담수보전 프로그램 256,803,422
- 숭 보전 프로그램 80,108,453
- 해양보전 프로그램 310,936,673
- 기후 기업 프로그램 337,922,329
- 호주산불 복구지원(2020) 88,552,685
- 어스아워 82,764,424
- 환경보전 인식제고 1,744,323,108
- 모금비 1,402,384,992
- 일반 관리비 676,008,235
- 기타 비용 108,384,992

WWF의 네트워크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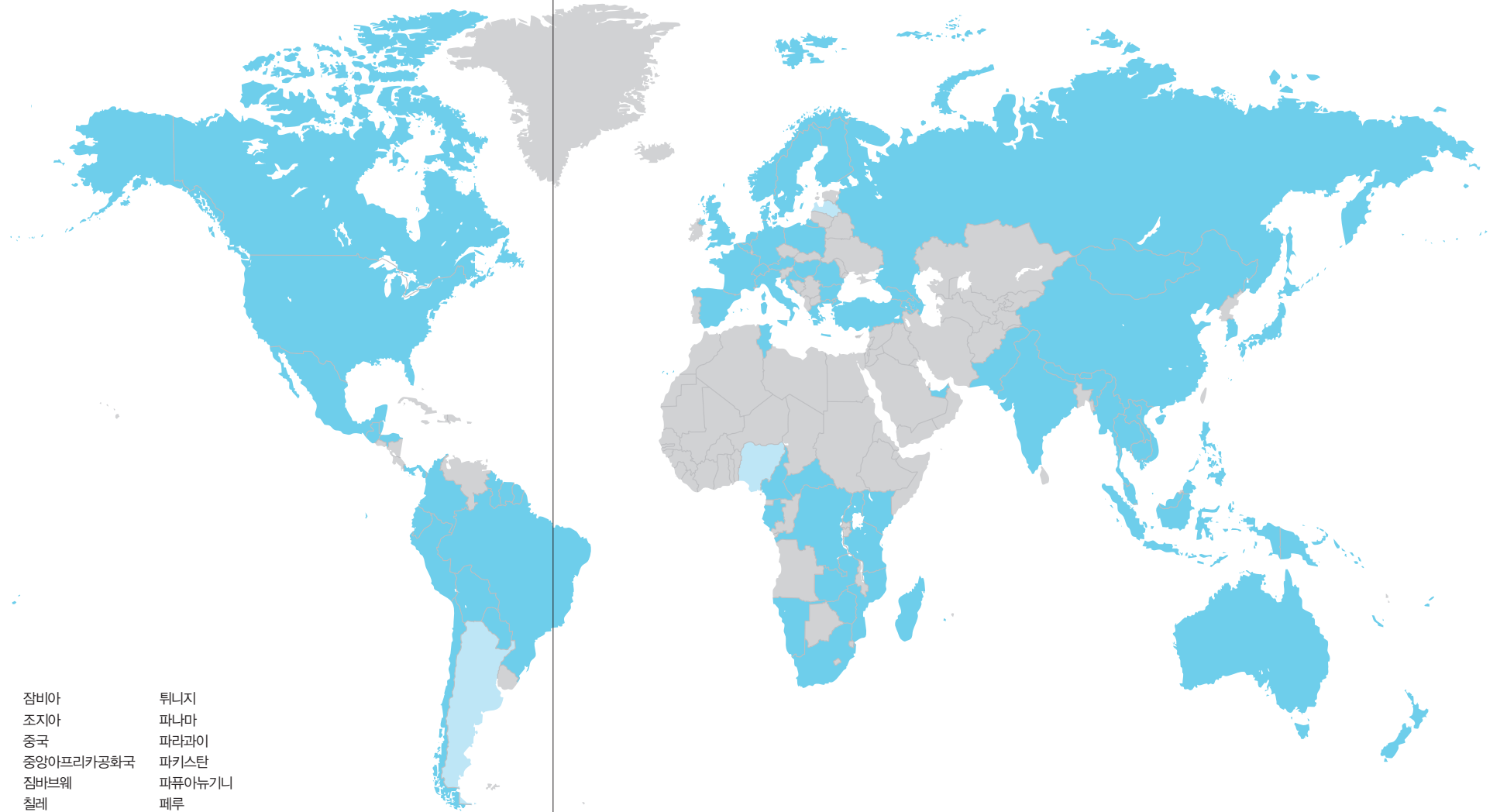
손성환 (前 스웨덴 대사/기후변화 대사)

이사

-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 박은실 (추계예술대학 문화예술 경영대학원 교수)
- 성래은 (영원무역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이병욱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조희경 (가온소사이어티 대표)
-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감사

함중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가봉	말레이시아	스위스	잠비아	튀니지
가이아나	멕시코	스페인	조지아	파나마
과테말라	모로코	슬로바키아	중국	파라과이
그리스	모잠비크	싱가포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나미비아	몽골	아랍에미리트	짐바브웨	파푸아뉴기니
남아프리카	미국	아르메니아	칠레	페루
네덜란드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포르투갈
네팔	베트남	에콰도르	캄보디아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벨리즈	오스트리아	캐냐	프랑스령기아나
대한민국	볼리비아	온두라스	콜롬비아	피지
덴마크	부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핀란드
독일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쿠바	필리핀
라오스	브라질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러시아	솔로몬제도	인도	탄자니아	호주
루마니아	수리남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마다가스카르	스웨덴	일본	터키	

WWF 제휴기관

- Fundación Vida Silvestre (아르헨티나)
- Pasaules Dabas Fonds (라트비아)
- Nigerian Conservation Foundation (나이지리아)

■ WWF Offices
■ WWF Associates

WWF는 자연을 보전하고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의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together possible. wwfkorea.or.kr

© 2020

© 1986 편다 도형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